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3 주

사람의 말을 제재하시는 하나님, 2부-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와 영역

2007년 10월 15일 ~ 10월 27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 -, -, 600 (영 330, 858, 859(459 반주), 831)

성경: 마태복음 17:24-27, 사도행전 10:1-48, 갈라디아서 2:11-16

📖 마태복음 17:24-27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 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0:1-48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9.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 시더라
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15. 또 두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23.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24.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26.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28.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 갈라디아서 2:11-16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

라

14.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좃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3 주 : 사람의 말을 제재하시는 하나님, 2부-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와 영역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16:13-15

- 13.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 14.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 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우리는 기독교의 기초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초가 없이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내용이 우리의 개인적인 계시이며 인도자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의 영역이 모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을 포함함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II. 기독교의 기초에 관하여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버나움의 집 안에서 베드로의 말을 제재하신 까닭)

◆ 나사렛 예수는 단지 한 사람일 뿐인가?

...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반 세겔(공세:貢稅) 받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세금이 아니었다. 그 질문은 주 예수께서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세금을 내야만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성경 학자들은 이 구절에 있는 세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첫번째 의미는 그것은 인세와 같은 종류의 것이고, 두번째 의미는 구약에서 목숨(혼)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같은 속전의 의미라는 것이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몇차례 다루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세금이 외인들에게 부과되고 이들에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일 주 예수께서 세금을 내셨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외인이자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주께서 세금을 내셨다면, 그것은 주께서 아들이심을 그분 자신이 부인하신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초는 무엇인가? 나사렛의 예수가 단지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만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독교가 있다. 만일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오늘밤 이 집회소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일을 관심하기 위하여 떠나 버릴 수 있다. 오늘의 질문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이다.

◆ 각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믿음이 있음 -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아마도 어떤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실로 믿음의 권속이라는 것을 느낀다. 믿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다. 이 특별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람은 단지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상을 통틀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중국과 다른 대륙에 있고,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중에서 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홀로이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시 안에서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워치만 니 전집, 21권(제2집 제1권), 11장, pp142~146)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2:19**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 **갈라디아서 6:10**

10. ...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짐

...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알 수 없고 비밀스럽다고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아덴의 신을 믿는 것과 같다(행 17:23).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들은 측량할 수 없고 가까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며, 결코 신약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며 하늘에 계신 비밀한 하나님이 아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그분 자신을 체현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신 후,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셨으며, 그분의 어찌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사람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가려 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았다. 그분은 우리와 같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 기초 위에 건축되었다.

마태복음 17장은 반 세겔을 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으며, 16 장은 베드로의 선포를 볼 수 있다. 주 예수께서는 많은 것을 관심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관심하셨으며, 오직 한 가지에만 주의를 기울이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이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하는 말을 하거나 그들이 주님을 좋아 한다든지 싫어 한다든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주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며, 한 가지 질문만을 하셨다. 『내가 누구냐?』였다.

기독교가 서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절한 기초를 갖지 못한다. 만약 주 예수께서 단지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중 한사람이었다면 기독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16 장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다.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분은, 『베드

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18절)』라고 말씀하셨다. 무엇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가? 교회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 주께서 이 말씀 후에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질문하였다. 여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으며,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나사렛 예수의 손을 잡을 수 있으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느낀다. 나사렛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는 것이 경이로운 일이다. 만약 나사렛 예수께서 단순한 사람이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교회는 무너졌을 것이고, 기독교도 무너졌을 것이며, 신약도 무너졌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에 달려 있다. (同 pp. 144-145)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16:16-17**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사도행전 16:30-31**

- 30.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II. 기독교의 기초에 관하여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계속)

베드로는 세리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

었다. 『네, 네. 우리가 세금을 낼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수 년 동안을 같이 있어 왔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세금을 내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할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둘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만일 그가 계속 말을 했다면, 기독교 기초 전체가 흔들렸을 것이다. 앞의 내용에서는 기독교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에 관한 것이었다. 화산은 기독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집 안에서는 기독교의 기초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

◆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속이 필요 없으심

성전세(반 세겔)를 내는 것에 대한 또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 만일 주께서 이 세금을 내야만 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구속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주께서 세금을 내야하느냐, 내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다. 만일 주 예수께서 세금을 내셨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속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은, 내가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정죄하던 한 천주교인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그 이유를 물었으며, 나는 마리아는 우리와 같다고 그에게 말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구주가 필요하였다. 내가 이것을 무엇에 근거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잉태하였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눅 1:47)이라고 말했다. 마리아도 역시 구주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주 예수께서 구주를 원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거짓이었을 것이다. 주 예수는 매우 겸손하지만, 그분이 죄가 있으시다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실 수 없다. 만약 주 예수께서 세금을 내어야 하셨다면, 그것은 그분께서도 구속이 필요함을 의미했을 것이다. 무엇이 기독교인가? 기독교는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건축되는 것이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나사렛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지위를 말하는 한편,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은 그분의 도덕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왜 주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이다. 베드로는 어떤 것도 더 말할 수 없었고 더이상 그의 입을 열 수 없었다. 베드

로는 말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께서 세금을 내지 않으셨음을 인하여 주께 감사 드리자. 베드로는 주님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했던 것을 알아야만 했다.

◆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 -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그러나, 그때 주님은 다른 원칙을 제시하셨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저들이 화나게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금화 한 닢(한 세겔)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라.」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외인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하려 하셨다. 주님은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금을 지불하였다. 주님은 저희들이 편치 않거나 즐겁지 않은 느낌이 들기 원치 않으셨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다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았다. 주님은 모든 기초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의 기초가 우리가 하는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지 말라. 그것은 하락하고 타락한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가의 문제이다. 그분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고 대답하였다. 그분은 주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주이신 것을 보아야만 한다. 인간의 눈은 멀어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다. 그러나, 이것이 중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다. 베들레헴에서 이천 년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란 그분은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은 그분이 사생아였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엘리야나 선지자들 중 한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약간의 통찰력을 주셨다면,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그분이 하나님의 체현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보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풀린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이 일에 대한 쟁점은 끝난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쟁점이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기쁘지 않거나 편치 않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세금을 지불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공과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한다. 때로는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그대로 포기한다. 우리의 권리를 지속시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하며, 우리가 잡은 물고기 입에서 금화 한 닢을 꺼내서 세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의 길은 너무도 넓을 것이며, 더이상 좁은 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거나 우리의 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놀라거나 오해 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권리를 붙잡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 놓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워치만 니 전집, 제2집, 제1권, 제11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pp.142-146)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사도행전 10:34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 갈라디아서 3:26-28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III. 기독교의 영역에 관하여 - 모든 거듭나고 구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제재하신 까닭)

◆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오순절이 지나고 약 반 년 정도가 지나서, 베드로는 가이사라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가 가기 전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는 유대인이기도 했다. 마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인 것과 같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려 보내셨던 까닭이다. 그 보자기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며, 각자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은 그에게 이상을 보이셨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은 모두 깨끗하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기득권을 가진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여겼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란 매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직 속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보이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다.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중간에서 가로막는 벽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겼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으며, 그들은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방인들이 특권 계층의 유대인들이 받은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원칙과 이상을 보았으며, 그의 입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중국인이나 다른 국적의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서 알고 있으며, 이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달리 행동한다. 베드로가 그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전히 그는 말하고 있었고 계속하려고 할 때, 성령이 와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 모든 이방인들은, 예외 없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켰다. 후에 베드로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도 내려왔던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던 것과 같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왔다는 것을 간증하였다. 그들을 침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워치만 니 전집, 제2집 제1권, 제11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pp. 146-148)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2:13-15**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 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교회 안에 계급이나 국적의 차별이 없음**

종종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변화되고 바로잡혀야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어떤 교정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각각의 이방인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방인도 유대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즉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첫째로 유대교로 개종되어야 하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건너 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낮은 곳에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서 있는 한,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어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나가 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개선하거나 더 좋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체험이 있은 후에 사람은 그가 죄인이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아무도 특별한 은혜를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특별하고 특권을 가진 계층과 따로 놓여진 계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인듯이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 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특권을 가진 죄인들인 반면, 이방인들은 아무런 비특권 계층의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특권이 있든지 특권이 없든지, 성령이 모든 죄인들 위에 임하셨음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며,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 해야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변화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당신 그대로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해야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특권입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는 아무런 국적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는 중국 그리스도인 교회(Chinese Christian Church)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번은, 매우 선한 한 사람을 만난적이 있는데, 그는 나에게 그가 그의 지방에 중국 그리스도인 교회를 조직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골동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시작한 것은 골동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골동품일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합당한 박물관 전시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교회가 없으며,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다면 중국이 없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 교회는 괴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중국이 없으며, 우리가 중국에 있으면 그리스도인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국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다면, 중국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옵니까?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유일한 기초는 당신이 주 예수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피부색이 무엇이든, 혈액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가 주 예수의 생명의 기초 위에 나옵니다. 모두의 죄는 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씻은바 되었으며,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혹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혹은 중국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아마도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이 그 유리한 점을 나눌 것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한 주로 인하여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주만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그날의 교회에도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만 합니다. (同, pp. 146-148)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사도행전 13:1**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 **로마서 11:33**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III. 기독교의 영역에 관하여 - 모든 거듭나고 구원 받은 사람들 (계속)

◆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본다면, 모든게 괜찮음**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구레네 사람은 흑인이었던 반면에 마나엔은 왕과 함께 자라난 자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더해서 한 선한 사람인 바나바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교회 안에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본다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본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임이나 단일에 대하여 말할 때, 당신이 나에게 혹은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는 문제입니까? 당신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남겨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으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것을 결코 외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친구들이여, 중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종, 현명한 자와 우둔한 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차이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더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와 현명한 자와 우둔한 자와 자유자와 종들이,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얼마전에, 나는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정부 관료들이 그들이 보통의 교회에 갈 수 없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시민들인 반면에, 그들은 관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기를 물었더니, 그들은 오륙 천불의 돈을 헌금하여 집회소를 지은 후 목사를 초청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집회소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약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회소를 「관료들의 교회」라고 이름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이 옳은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 그 이름이 합당치 않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같습니다. 육신의 차이로 인하여 어떤 차별도 둘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유대 지방에 교회들만이 있을 뿐, 유대 교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들은 유대의 땅에 있을 뿐, 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교회들이 있으나 중국의 교회가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국에 교회들이 있고, 미국에 교회들이 있지만, 영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기독교의 영역은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제재하시는가?

기독교의 기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이 개인적인 계시와 인도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것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영역이 모든 거둡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떡을 떼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 오직 우리와 함께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만 본다면, 이 떡에 손을 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은 전체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리만 본다면, 우리는 이 떡을 댈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넓어야 하며, 그들이 모두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계층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적 수준으로 차별하는 어떠한 관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 임하신 것과 같은 길로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차별은 아담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아담에 속한 어떤 것도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기 바랍니다. 만약 아담에 속한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반면에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워치만 니 전집, 제2집 제1권, 제 11장, pp. 146-148)

◆ 추구 자료 ◆

1. 워치만 니 전집, 제 2 집, 제 1 권, 제 11 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2. 열두 광주리 가독히, 제 1 권, 『하나님께서 사람을 침묵시키심(God Silences Man)』, pp. 14-38)

제 3 부: GTA 권속 교통

기도의 부담

1. 영어권과 중국어권 모두에게, 교회안에서 계속되는 복음의 부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청소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무거운 부담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격려와 주님으로부터의 더 많은 힘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식 및 안내

기타 안내

- a. Hall 3 집회 일정: 주일 집회 시간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오전10:00 - 10:30 | 주의 만찬 |
| 오전10:30 - 11:00 | 자유 교통 시간 |
| 오전11:00 - 12:00 | 찬양, 찬송 및 메시지 |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Hall 1,2 & 3	Sunday, 10:00 AM	Hall 1	671 Sheppard Ave. E, North York,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Hall 1	Saturday, 7:00 PM	Hall 2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Hall 2	Friday, 7:00 PM	Hall 3	7 Gretna Ave, Toronto, ON
Grade 6 Meeting	Hall 1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Hall 1 & 3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
	Hall 2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토요일, 오후 1:00 (한국어 가정 소그룹)

(이 어침부흥지는 영어 어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어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